

## 0. 책을 내며

일본서기는 야마토 왕국의 정사이다. 일본서기는 야마토 왕조가 기원전 660년에 세워졌다고 기록을 했다. 기원전 660년이란 인도의 석가모니(B.C. 566?-486년)가 태어 나기 100여 년 전이며, 중국 춘추시대(B.C. 722-404년)의 전반 에 해당한다. 서양으로 말하면, 전설상의 로마 건국 년도인 기원전 753년과 로마에서 공화정이 시작된다는 기원전 509년 사이에 해당한다.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B.C. 336 -323년)이 나타나기 300여 년 전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 그 누구도 이 건국 년도를 사실 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야마토 왕국은 어느 때 세워진 것일까?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야마토 왕국이 4세기 말경의 오오진(應神)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712년에 완성된 고사기와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에 의하면, 오오진은 야마토 왕국의 15대 왕이다. 일본서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오오진은 서기 390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390년경에 야마토 왕조를 세운 일본 천황가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야마토 왜(倭),” 즉 듣기 좋게 바꾸어 말하자면, “야마토 일본”은 어떻게 창건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의 해답이 있다. 우선 “일본인”이란 이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고유한 민족”인데, 야마토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발전 단계”를 거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순수한 토착 지배세력”인 천황가 선조들의 노력으로, 야마토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성립된,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얘기다.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이 모범답안을 다양한 형태로 포장해서 일본 국민에게 제공을 해오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는 고전적 경제 법칙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북중국-내몽골 지역의 기마 유목민족 전문가인 동경대학 교수 에가미(江上波夫: 1906-)의 기마민족설은, 아주 이례적으로, 야마토 왕국의 근원을, 대륙에서 건너온 기마 민족에 의한 정복에서 찾으려했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대략 4세기말을 전환점으로 해서 새삼 발견되는, 말과 관련된 다양한 고분 발굴물 이다.

하지만 에가미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일본 국민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그 기마 정복민족의 정체성을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또 신비하게 만들었다. 즉, 구체성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학설에 대한 일본 대중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나라에서 말을 타고 건너온 왕자와 그 일행에 의해 야마토 왕국이 창건되었다면, 오히려 낭만과 신비감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기마(騎馬)민족설이란 바로 “천황 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귀에 익은 (고사기-일본서기) 얘기에다, “말을 타고” 내려왔다는 수식어를 하나 더 추가한 꼴이었다. <주0-1>

에가미 교수가 1948년 이래 끊임없이 주장해 온 이 기마 민족설은,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야마토 왕국이 대륙에서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정복 왕조 라면, 과연 그 도래인 집단은 누구였을까?

필자가 1988년과 1994년에 출판한 저서들에서 주장한 것은, “4세기 후반에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야마토

왕국을 세웠고, 천황족의 근원은 백제 왕족이다”라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학설은, “쿠다라(百濟) 야마토 (倭)” 설이라 할 수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백제라고 한자로 써 놓고 “쿠다라”라고 읽었고, 또 왜라고 한자로 써 놓고 “야마토”라고 읽었다.) 핵심적인 근거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다. 보완적인 성격의 근거는 신찬 성씨록, 속일본기, 풍토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국 왕조의 정식 역사 책(정사) 등의 기록들과, 다양한 고고학적 물증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등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상권에 해당하는 신들의 시대(신대) 기록을 읽어 보면, “일신(해의 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 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나는 상권의 니니기 와, 중권에서 등장하는 시조 이하레(진무)와 15대 왕 호무다 (오오진), 이 세 명의 상이하게 기록된 존재가, 야마토 왕국의 실제 시조인 호무다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기록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즉,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에 대한 설화적인 기록은 니니기 부분이 담당하고, 전투와 정복의 기록은 진무(이하레) 부분이 담당하고, 백제 사람들의 대규모 도래 기록은 오오진(호무다)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서기와 고사기의 전편에 흐르는 그 많은 기록들 중에, 현대 일본 사학자들이 그들 교과서에 게재를 허용해 주는 것은, “백제의 왕인이 오오진 때 야마토에 천자문을 전해 주었다”라는 내용처럼, 티끌 같은 사례뿐이다. 무지한 요즘의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감지덕지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왕인의 도래를 기념한다는 소위 “왔소, 왔소” 행사를 매년 오오사카에서 벌리고 있다.

2001년 12월 23일, 아키히토(明仁)가 자신의 68세 생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개인으로서는 칸무

(桓武,737-806년) 천황의 생모가 무녕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쓰여 있는데 대해 한국과의 연(緣)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일본 왕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사실이 고대 한일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티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필자는, 처음 한 5년 정도의 연구 결과를, 1988년에 초고 형식으로 (영문으로) 출판을 했다. 그 후, 한 5년 정도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완전한 형식으로, 그 결과를 1994년에 영문과 국문으로 출판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노력은, 필자가 주장하는 "쿠다라 야마토" 설의 합리성을 보여주는데 그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필자의 연구 결과는, 해외의 여러 학술지에서 서평 형식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하지만 필자 자신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시 필자가 쓴 글이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경제학자의 학술 논문 형식에 가까웠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특화된 전문가 이외에는, 일반 독자가 흥미를 가지고 읽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 한 예를 보면, 1994년에 출판된 국문판 책을 서울대학교 동료교수 한 200여명에게 주었는데, 지금까지 필자의 책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은 그 중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다. 국내에서 국문 판이 모두 3천 권 정도 나갔는데, 필자 생각에는 정독을 한 사람이 10여명 내외밖에 안되는 것 같다. 받아 본 편지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외국에서 영문판을 정독한 전문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주0-2>

필자가 주장하는 학설은 쿠다라(百濟) 야마토(倭) 설이고, 필자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구하는 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기존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흥미를 가지고 읽어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재정리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는, 학문적으로 특화된 전문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비전문가인 일반 독자들이 원하는 읽기 쉬운 내용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오랜 생각 끝에, 각 페이지의 안쪽 구석에는 원전의 인용문들을 한문 그대로 그 출처를 밝혀서 인쇄를 하고, 바깥쪽에는 한글세대들이라도 부담감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가능한 한 대화체로 쓰기로 했다.

즉, 가능한 한, 한글세대에 속하는 독자를 바로 필자 앞에다 놓고 필자가 직접 이야기를 말로 해 주는, 짧은 문장의 구술 형식을 택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문장이 길어지면, 영어 문장처럼 쉼표(.)를 최대한 사용하여, 독자의 내용 파악을 쉽게 해 주려고 노력했다.

비전문가들은, 안쪽 구석에 나타나는 그 많은 한자들을,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상형문자를 본 단 스카프의 디자인이나 추상화 그림 정도로 생각하여, 무시해 버리고, 필자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 주기 바란다. 그저 필자가 하는 말들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믿어주면 된다. 전문가들은, 필자 얘기를 들으면서, 원전 인용문들을 하나하나 검토 해 보면 될 것이다.

서술 방법은, 각각의 사건의 자초지종과 인물의 전기를 모아서 기록을 하는 기전체(紀傳體)가 아니라, 년월일을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편년체(編年體)를 택했다.

이번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진다. 필자는 야마토 왕국의 건국 시조로부터 오호하쓰세(雄略) 재위기간 [463-479년] 까지만,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원본에서 나타나는 일본식 시호(和風諡號)를 사용한다. 여기 까지가 제1부를 구성한다.

그 이후 (제2부)부터는, 왕들을 지칭할 때, 현대 일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식 시호(漢風諡號) 만을 사용한다. 예컨대 오호하쓰세는 왕자 때부터 실제로 사용을 하던 이름이고, 유랴쿠(雄略)는 훨씬 후대에 만든 중국식 시호이다.

제1부에서는, 년도 추정을 비롯해서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추리와 가정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제2부는 구태여 큰 가정을 하거나, 힘들게 추리를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추정을 한 내용은,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각진 괄호[ ] 속에 썼다.

일본어의 우리말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을 대체로 따랐으나 장음 표기 등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어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거의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초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 鄭基俊 교수와 원고를 한번 보고 즉시 출판을 하기로 해 주신 一志社 金聖哉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3년**

**저자 洪元후**

## 서문 주

<주0-1> 에가미는 기마민족설을 (고고학적인 물증뿐 아니라) 역사적 사료에도 근거를 둔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기마 정복집단의 지도자가 한반도 남단에 위치했던 미마나 라는 지역의 "미마키"라는 존재이었다고 주장한다. 위서 동이전은, 마한에 50여개 나라가 있고, 진왕(辰王)은 그중 목지국(目支國)을 다스리는데, 변한-진한 24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진왕에게 신속(臣屬)하고 있으며, 마한 사람이 항상 진왕이 되어 세습을 하지만, (마한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진왕이 자립해서 왕이 되지는 못한다고 기록을 했다. (아무리 거듭 읽어보아도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기록이다.) 에가미는, 3세기 동이전에 등장하는 바로 이 진왕들의 후손인 미마키가 일본열도의 정복을 지휘했으며, 또 그 진왕들은 일찍이 부여-고구려-백제 지역을 경유해서 한반도 남단의 가야 지역에 정착하게 된 기마민족의 수장일 것으로 추정한다. (Egami, 1962)

<주0-2> 외국의 전문가들이란, 필자의 책의 서평을 써준 전통적인 역사학자들 뿐 아니라, 필자의 책을 읽고 인용을 해 준 J. Edward Kidder 같은 고고인류학자 ("Reply to Hannelore Eisenhofer-Halim's Review of William Wayne Farris, *Sacred Texts and Buried Treasure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7:1, 2001, p.258), 또 J. Marshall Unger ("Layers of Words and Volcanic Ash in Japan and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7:1, 2001, p.89) 와 Juha Janhusen (*Manchuria: An Ethnic History*, The Finno-Ugrian Society, Helsinki, 1996, pp. 634, 653, 661) 같은 언어학자, Alissa Quart ("The Lost Emperors: Who is buried in Japan's imperial tombs? Thanks to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there's no way to know," *Lingua Franca*, December 2000/January 2001, p.58) 같은 평론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경제학을 전공해 온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런 선입관이 없이, 책 내용 그 자체만을 있는 그대로 읽고나서 인용도 하고 서평도 써 준다는 것이다. 외국 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인위적인 자격증명서나 전공의 장벽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